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라

마태복음 28:16-20

우리는 막 성금요일과 부활절을 기념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비전은 무엇일까요?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앞으로 세 번의 설교를 통해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부활절 기간 동안, 우리 가정 사역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을 향해 걸어가시는 과정을 창의적이고 시각적이며 촉각적인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는 활동(부활절로 가는 길)을 준비했습니다. 이 부활절로 가는 길 체험의 한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상상하는지 그림을 그려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산 정상에 서서 두 손을 들고 광활한 산맥을 바라보는 사람을 그렸습니다.

Prayer Summit: 산 정상에서 예배와 기도를 경험합니다**.** 5월 7일**.**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에 집중하며**,** 서로를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립시다**.**

산 정상의 무엇이 우리를 예배하게 하는 걸까요? 창조의 아름다움일까요, 산맥의 장엄함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작은 세상을 넘어 광활한 하나님의 세상에 압도되는 경험일까요?

16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Now the eleven disciples went to Galilee, to the mountain to which Jesus had directed them.

첫 번째 단어 "Now"는 "그러나"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은 공모했습니다. 그들은 당직 군인들에게 상당한 양의 은을 뇌물로 주고 "너희가 자는 동안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 갔다고 사람들에게 말해라."라고 말했습니다. 은폐 공작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열한 제자들은 갈리리로 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는 대조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두 마리아에게 지시했던 데로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28:10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26:32; 28:7).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신자가 아니라 형제라고 부르신 것에 주목하십시오**.** "형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칭하실 때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갈릴리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희망으로 가득 찬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산 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1)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높은 산 위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십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세상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예수님이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그 모든 나라를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마태복음 4:10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진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아들 예수님께 열방을 약속하셨고,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시편 2편 참조).

(2)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산에 오르시어 산상수훈을 전하십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위한 제자 훈련 지침서입니다. 이 설교는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마태복음 7:29)라는 말로 끝맺습니다.

(3) 마태복음 14:23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려고 혼자 산에 오르십니다.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방금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단둘이 계셔야 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시며 폭풍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며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4) 마태복음 15장 29-31절에서, 갈릴리 호수 동쪽 데카폴리스 지방의 한 산에서 많은 사람을 고치신 후, 예수님은 4천 명(대부분 유대인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됨)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 마태복음 17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변형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마태복음 17장 5절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6)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성전을 떠나신 후, 감람산에 앉아 역사의 회랑을 내려다보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왕국을 충만하게 세우기 위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징조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산꼭대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산꼭대기에서 제자들은 그분의 영광을 엿봅니다. 산꼭대기에서 제자들은 다가올 그분의 왕국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산꼭대기에서 제자들은 그분의 권위에 대한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멀리 보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1. 열방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강렬한 비전

예수님은 갈릴리 어디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까?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아르벨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셨다고 믿습니다. 이 산에서는 갈릴리 바다의 환상적인 전망을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쪽으로는 헤르몬 산, 동쪽으로는 데가볼리 지역까지 보입니다(사진). 이스라엘 너머의 열방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모든 민족,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승천 직전에 예수님은 이 명령을 다시 한번 반복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세계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주어진 축복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곳의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을 것입니다. 갈릴리 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본 열한 제자였을 것입니다(마태복음 28:7). 하지만 열한 명 외에도 훨씬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한 번에 500명에게 나타나신 곳이 바로 이 산이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은 사명은 오늘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비전은 예수님의 첫 제자들에게 맡겨진 비전, 즉 "예수님과 함께 선교하는 가족: 모든 사람, 매일, 모든 곳"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열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지만, 때로는 의심하고, 주저하고, 확신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출현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살펴보십시오.

마태복음 28:17
예수를 뵈옵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어떤 이들은 경배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높은 산 위에서 사탄에게 대답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천사 앞에 엎드렸지만, 천사는 경배를 거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배는 하나님께만 맡겨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경배를 환영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죄와 죽음, 그리고 악한 자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의심합니다. 이 놀라운 비전이 때때로...

2. 내면을 들여다보다: 예수님의 조심스러운 제자들

"의심"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신약성경에서 이 단어가 나오는 또 다른 곳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러 물 위를 걸을 때뿐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바람과 파도 때문에 흔들렸습니다(마태복음 14:31). 그는 주저했습니다. 그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고 굽이치는 흰 파도와 거센 파도를 바라보며 주저했습니다. 그는 물의 위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라앉았습니다. 그의 변함없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갈릴리 산에서 의심하던 제자들은 믿기를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약 200킬로미터를 걸어 갈릴리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했겠지만, 그들은 여전히 완전한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도마가 예수님을 보기 전에 의심했던 것처럼, 그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지 환상일 뿐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이 약하고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즉시 영적 거인으로 변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D.A. Carson, Matthew, p. 664).

열한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적어도 두세 번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그분을 만졌습니다. 500명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들 역시 곧 겸손한 경배로 엎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폭풍에 직면할 때 주저하고, 심지어 의심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당신의 삶에 역경의 바람은 어디에 불고 있습니까? 당신의 세상을 뒤흔드는 파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폭풍은 재정적 폭풍일 수도 있고, 학교 캠퍼스의 폭풍일 수도 있고, 가정의 폭풍일 수도 있고, 건강의 폭풍일 수도 있고, 이민의 폭풍일 수도 있고, 문화적 폭풍일 수도 있고, 국가적인 폭풍일 수도 있습니다. 연방 선거 결과를 접할 때,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될까요? 예수님께 고정될까요, 아니면 바람과 파도에 고정될까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의 거센 파도에 빠져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은 경배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들의 미래는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와 말씀하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분의 첫 말씀은 이미 일어난 일을 드러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 이것은 이미 과거의 일입니다.

이것은 다니엘 7장 13-14절의 성취입니다.
13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14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이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제자가 된다는 것의 전부입니다. “권세”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권세나 통치권을 행사할 권리를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역 동안 아버지를 계시하고,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행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새로운 것은 예수님의 권세가 무한히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 주일은 예수님을 승천하신 분으로 확립했습니다. 우주 전체의 주님(CEO).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사명에 순종할것입니다.

3. 위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보편적 권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하시는 영역은 하늘과 땅 전체를 포함하도록 확장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종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통치를 행사할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o 모든 영적인 권세에 대해
o 지상의 모든 장소에 대해
o 지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
o 지상의 모든 상황에 대해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시며, 최고의 통치자이시며 심판자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에베소서 1:19-23
19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1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의 선교 사역의 성공은 그분의 절대적이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권위에 의해 보장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보편적인 선교는 그분의 보편적 권위에서 비롯됩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주권 덕분에 우리 제자들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재세례(Anabaptism, 재세례) 500주년을 기념합니다. 1525년, 몇몇 스위스 대학생들은 성경을 읽다가 신앙 고백 후 침례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위스 취리히에서 그들이 받은 세례는 윌링던이 회원으로 있는 재세례파 운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1527년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열린 첫 번째 재세례파 시노드(지도자 회의)에서 선교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 모임에는 60명의 재세례파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대위임령과 시편 24편 1-2절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1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2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는 초기 재세례파가 가장 많이 인용한 구절들 중 일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럽의 왕들과 왕자들은 사람의 종교는 지리적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살느냐에 따라 루터교인이거나 로마 가톨릭교도였습니다. 유럽 밖으로의 전도는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재세례파는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땅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통치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왕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곳마다 그분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영감을 받아 그들은 중부 유럽 전도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그리고 유럽 너머의 무슬림 지역에 선교사들을 파견했습니다. 대부분의 대의원들이 곧 순교했기 때문에 이 회의는 "순교자 회의"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역사가 프랭클린 리텔은 이렇게 썼습니다. "재세례파는 모든 교회 구성원에게 대위임령을 구속력 있게 적용한 최초의 교파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조직에서 파송받은 곳으로 가겠다는 약속은 참된 교회에 입교하는 의식의 일부였습니다."(프랭클린 리텔, 자유 교회) 예수님과 동일시된다는 것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그분의 보편적 권위 아래에서 위임받았듯이, 초기 재세례파도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자신의 교회를 세워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보편적 권위에 근거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2)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가지 "모두"라는 표현을 눈여겨보셨습니까? 이것은 대명령을 하나로 묶습니다.

(1) 모든 권세
(2) 모든 민족
(3) 모든 것을 가르치심
(4) 항상 (혹은 모든 날 동안) 너희와 함께 있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십니다!
“그러므로” - 예수님은 그분이시며 그분이 가진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에, 제자들인 우리에게 복음을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대명령의 가장 중요한 명령은 “제자를 삼으라”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배우는 자, 따르는 자, 교사에게 소속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신에게 소속시키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예수님이 우리를 소속하시는 은혜보다 그분에 대한 사역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결합시키는 그 힘으로 그분께 대한 온 마음을 다한 헌신을 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줍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나 소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그분께 소속됩니다(요한복음 20:28; 28:20).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와서 나를 따르라. 와서 내 뒤로 오라. 와서 내게서 배우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특권을 허락하시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제레미 타디프의 간증(영상)을 시청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간증

2023년 1월 말, 제가 세례 받기 일주일 전쯤, 교회 주차 담당 형제님이 제게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말씀의 가치를 전혀 몰랐지만, 그 말씀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저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경고였습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마귀의 공격이 거세지고 삶이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 경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님은 다른 새 신자들에게서도 이런 일을 여러 번 목격했고, 때로는 영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향한 길에 머물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세례 받은 지 일주일 만에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떠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기독교로 개종한 것을 우리 결혼 생활의 "결정적 파탄 요소"로 여겼습니다. 저는 그 말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혼란스럽고 화가 나고 불안했던 저는 갑자기 몇 주 전에 들었던 말씀이 떠올라 두 분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은 저에게 경고했던 그 형제님에게, 또 한 번은 제가 속한 라이프 그룹 형제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형제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 순간 제가 상황을 바로잡고 더 명확하게 보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 제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수님은 군중에게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형제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미움이 더 낮은 차원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제게 최고의 사랑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저는 제 삶을 되돌아보며, 설령 결혼 생활이 끝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발견한 것을 포기하거나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께서 제 삶에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주셨고, 저는 모든 것을 그분께 빚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을 믿고 소망하기로 했습니다.

그 첫 시련 이후로 삶이 크게 나아진 것은 없었지만, 교회에서 정말 소중한 우정과 지지를 얻었습니다. 주차 사역, 디스커버리 수업, 그리고 남성 모임에 참여한 것이 영적으로 바른 길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 제 삶에서 몇 가지 어려움이 더욱 심해지자, 목사님 중 한 분께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 큰 격려를 받았고, 놀랍게도 목사님과 함께 제자 훈련을 시작해 보자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여정의 이 시기에 이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신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과 함께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 기회에 너무나 감사하며,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온전케 하실 것"(빌립보서 1:6)임을 알기에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

제레미는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채워 주셨기에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모두 제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따릅니다. 문제는 여러분과 재가 누구의 제자가 될 것인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누구의 제자가 될 것인가입니다.

또 누가 세상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까?
또 누가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까?
또 누가 죽음에서 부활했습니까?
또 누가 만물의 권위를 가졌습니까?

또 누가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따르는 자가 될 것인가? 윌링던에서 우리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두 단어로 요약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세요.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을 따르겠다는 우리의 헌신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 그분 안에 거함으로써 변화되어, 서로에게 그리고 세상에 그분의 사랑과 성품을 반영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 한 문단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 곧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 위에 삶의 기반을 두며,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는 임재 안에서 살도록 부르십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영에 의한 영적 거듭남으로 시작되며,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온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지속됩니다. 진정한 제자도의 특징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예배와 기도의 기쁨, 교회 가족에 대한 사랑,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사랑, 원수에 대한 사랑, 겸손, 정직,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내 생각을 받아들이라. 내 가치관을 마음에 새기라. 내 삶의 방식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강렬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역사와 인류를 바라보는 그분의 관점, 곧 그분의 실체를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진정으로 지속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평생에 걸친 배움의 모험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주저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명령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세워집니다. 나아가지 않으면 제자를 삼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날들의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며 때때로 주저합니다. 가고 싶은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확신이 없는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나라가 뚫고 들어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확신이 늘 있는 것은 아닌 제자들을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사명에 순종하며 그분의 권위에 뿌리를 두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의심은 사라지고 부활하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를 노래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묵상 질문>

1. 예수님은 경배하는 제자와 의심하는 제자 모두를 명하십니다. 오늘 당신은 왜 그분을 경배합니까? 무엇이 당신을 주저하게 합니까?
2.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진리가 제자를 삼으라는 부르심에 어떻게 당신을 강화하고 담대하게 해 줄 수 있습니까?